

인과적 설명으로서의 교육과학과 구조-행위 문제를 다루기:

한영옥(2022),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에 대한 토론문

곽태진(고려대)

위대한 호이겐스 및 비견할 수 없는 뉴턴 선생 같은 부류의 대가들을 낳은 시대에는,
지식으로 향하는 길에 놓여있는 몇몇 쓰레기를 제거하고 바닥을 조금 청소하는
기초작업자(under-labourer)로 고용되는 것조차 충분히 야심찬 일이다.¹⁾ - John Locke

위대한 과학혁명의 시대에 로크(John Locke, 1632~1704)가 이미 말한 것처럼, 발전하는 과학의 기초작업자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다분히 야심찬 일이다. 어쩌면 과학혁명의 시대 이래로, 대학문(master-science)으로서의 철학은 불가능해지고, 오로지 기초작업자의 역할만 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한다면, 교육철학 역시 ‘교육과학을 위한 기초작업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 교육철학 연구자로서 토론자는 이러한 입장에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형태발생론적 접근을 중심으로」(이하 ‘발표문’)는 ‘혁신자치학교’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을, 아처(Margaret S. Archer, 1943~)의 형태발생론에 근거하여 접근한 경험적 연구로서, 해당 정책의 맥락과 실행 과정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자치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표문은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특히, 교육학의 경험적 연구에서 아처의 이론적 문제들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상당히 유의미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교육학 영역에서도 직접적으로 아처의 형태발생론을 중심에 두고 있는 이성희·정바울(2015)³⁾이나, 근거이론적 방법을 과학철학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작업의 과정에서 아처와 비판적 실재론을 참조하고 있는 변기용·이인수(2020)⁴⁾와 같은 연구들이 이미 제출되어 있지만, 아처의 이론을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적용한 방대한 경험적 연구는 드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발표문은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의 과정을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형태발생론에 근거하여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과정에 관하여 인과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료의 분석과 기술을 두 단계로 진행하는 방식을 통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단순한 해석(학)적 차원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교육과학을 포함한 모든 과학이 성취하고자 하는 ‘인과적 설명’을 지향하

1) John Locke,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Oxford: Clarendon Press, 1975), pp. 9-11.

2) 토론자는 졸고(곽태진, 2019)에서 교육과학을 “교육이라는 대상에 대하여, 경험적 근거 위에서 문제가 되는 현상의 원인이 되는 구조와 인과기제를 탐구하는 일을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에 관한 이론을 진전시키는 일련의 탐구 과정과 그 결과물”이라고 규정하고, 교육철학이 교육과학철학으로서 교육과학을 위한 기초작업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곽태진, 「교육과학을 위한 기초작업자로서의 교육철학」, 『교육철학연구』(2019), 41(1), pp. 1-23.

3) 이성희·정바울, 「아처의 형태발생론적 접근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성찰”의 재개념화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2015), 25(1), pp. 189-210.

4) 변기용·이인수, 「근거이론적 방법이 교육행정학 연구방법론 확장에서 가지는 의미」, 『교육행정학연구』(2020), 38(2), pp. 137-165.

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질적연구가 적절한 개념적 장치와 구조(여기에서는 아처의 형태발생론의 주요 개념들과 그 틀)의 도움을 받아, 혹은 오히려 그 장치와 구조 ‘안’에서, 행위자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 발표문은 넓은 의미의 연구방법(구체적으로 사용하는 연구의 기법만이 아니라, 연구와 서술의 방식과 구조까지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연구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발표문은, 교육행정학을 포함한 교육과학의 경험적 연구들이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이론적/철학적 논점들 몇 가지를 함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논점들 가운데 특히 중요한 사안들 몇 가지는 아마도 인과적 설명 및 구조-행위 문제와 깊이 결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토론자는 이러한 논점들 몇 가지를, 발표문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인과적 우선성의 판별

발표자가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아처는 “구조만을 강조하거나 행위자성만을 강조하는 융합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발표문이 적용하고 있는 이론적 틀인 형태발생론과 분석적 이원론 역시 “구조와 행위자를 분리하고 구조의 제약과 행위자의 자율적 행위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16. 이하 발표문에서의 인용 및 참조는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⁵⁾ 이러한 점에서, 발표문은 혁신자치학교 정책의 실행 과정에 작용한 요소들 및 그것이 가져온 변화를 어느 구조와 행위(자) 가운데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특히 행위자성 개념을 유용하게 사용하여—잘 분석해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분석은 ‘교육적 사건(event)’이 다른 사회세계/인간세계의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인과기제들이 작동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다중결정(multiple determination, 혹은 알튀세르의 용어로는 과잉결정(surdétermination)) 된다는 점에서,⁶⁾ 혹은 더욱더 복잡하게 다중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복잡한 결정 과정을 밝혀내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마르크스주의에 호의적이었던 시절의 메를로-퐁티가 남긴 다음과 같은 지

5) 아처가 제시한 형태발생론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처가 기대고 있는 (사회)과학철학인 비판적 실재론을 정초한 바스카의 구조-행위 모델(Bhaskar, 1998)과 아처 형태발생론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아처는 바스카의 모델이 실질적인 역사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인간 행위 ‘속에서’ 사회구조가 재생산/변형된다고 함으로써 과잉인간화되어 있고, 이전의 구조와 이후의 구조가 상호작용에 의해 연결되지도 않는다고 비판한다. Margaret S. Archer, *Realist Soci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Roy Bhaskar, *The Possibility of Naturalism* (3rd edition) (London: Routledge, 1998). 기존의 다른 구조-행위 모델과 바스카 모델의 차이에 대해서는 Bhaskar, 같은 책, pp. 31-33 참조. 바스카와 아처의 구조-행위 모델의 적절성에 관한 판단은 별도의 상론을 필요로 할 것이다. 다만, 토론자는 캘리니코스(2017)가 제시한 바, 사회세계에 관한 설명에서 구조는 설명적 자율성을 지니며, 결국 사회세계에 대한 설명의 상당 부분은 구조에 의존하게 된다는 견해에 동의한다는 점을 밝힐 필요는 있을 것이다. Alex Callinicos, 『역사와 행위』, 김용학 역(서울: 교보문고, 1991), 제2장 참조.

기실, 적절한 구조-행위 모델을 구성하는 일은, 어쩌면 일찍이 마르크스가 언급한 바,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만들지만, 단지 그들이 바라는 대로 역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의해 선택된 환경 아래에서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주어져고 전수된, 직접적으로 마주한 환경 아래에서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명제를 다듬고 정교화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Karl Marx,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In *Karl Marx & Frederick Engels Collected Works*, Vol. 11 (London: Lawrence & Wishart, 1979), p. 103.

6) Roy Bhaskar, *Scientific Realism and Human Emancipation* (with a new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2009), pp. 109-110; Louis Althusser, 『마르크스를 위하여』, 서관모 역(서울: 후마니타스, 2017), 전체에 걸쳐 과잉결정 개념이 중요하지만, 해당 용어에 대해서는 특히 p. 180 참조.

적을 상기한다면, 인과적 우선성을 판별하는 일은 인과적 설명으로서의 과학적 작업에서 꽤나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즉 생산의 문제를 중시하는 마르크스주의자라면, “차례차례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경제적 조건과 다른 조건들이 복잡한 방법으로 혼합되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현상들의 분석에 있어서 이미 진행된 역사의 한 부분을 숙고해 본 후 그것이 사물의 진행 상태를 훨씬 충실하게 그려낸다는 것이 기정 사실이라 할지라도, 전자(경제적 조건)에게 특권을 부여할 권리가” 있다고⁷⁾ 주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경제적 환원론자들’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인 것만이 아니라, 메를로-퐁티가 언급하듯 “학자들의 일상 과제가 그런 일”로서,⁸⁾ 학술적 주장들 사이의 논쟁 상당 부분은 인과적 우선성을 어디에 부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견해가 모종의 환원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며, ‘포스트모던 시대의 다원성’에 익숙한 우리 세대의 연구자들에게 큰 우려를 자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여러 조건들의 복수성”이라는 것이, 여러 조건들 가운데 “하나를 주된 조건으로 취급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않는다.⁹⁾ 즉, 사건이 다중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가운데 어떤 특정한 인과기제가 인과적으로 우선적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⁰⁾

인과적 우선성을 판단하는 일은, 이론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실천적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세계에 경험적으로 개입—이것이 실천이 지니는 일반적인 의미일 수 있을 텐데—할 때, 인과적으로 우선적인 요소에 대하여 개입하는 것이 유효하며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개입에 투여할 수 있는 인간의 자원과 노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떤 목적과 전망을 가지고 실천할 때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발표자가 판단하기에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할 때 가장 큰 인과적 우선성을 지니는 요소는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게 된다.

2. 거시적 구조와 발현

앞에서 살펴본 논점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또 다른 논점은 거시적 구조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거시적 구조에 관한 논점은 연구의 추상성 수준 문제와 연계되지만, 추상성 수준 문제는 다음의 항목에서 다루고, 여기에서는 거시구조의 문제 및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발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발표문에 따르면, “구조적, 문화적 조건화이자 사회문화적 정교화로써의 구조와 문화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즉, 학교 외부의 구조 및 문화와 학교 내부의 구조 및 문화가 있다는 것이다(33-34).

이렇게 본다면 T1 시점(17의 [그림 II-2] 참조), 즉 앞선 시점에서 주어진 조건을 규정하는 구조와 문화 가운데 비교적 거시적인 수준에 속하는 것은 학교 외부의 구조 및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학교 외부의 그것들만이 아니라 학교 내부의 그것들도 T1 시점에서 조건을 규정하는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발표문에서 ‘교육행정체계’, ‘혁신자치학교 정책’, ‘교육제도와 사회적 인식’ 등으로 규정한 것들(44의 <표 IV-2> 참조)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보다 거시적인 수준까지 고려했을 때에, 이런 요소들은 보다 근저에

7) Maurice Merleau-Ponty, 『의미와 무의미』, 권혁면 역(파주: 서광사, 1985), pp. 154-155.

8) 같은 책, 같은 페이지.

9) 같은 책, 같은 페이지.

10) 인과적 우선성을 판별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구조/인과기제가 문제가 되는 현상의 설명에 있어 우선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문제가 되는 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인과기제에 인과적/설명적 우선성이 부여된다.

있는 구조-교육혁신의 제도화에서부터 국가장치의 일부로서 교육제도 일반에 이르기까지-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발현에 관한 논의를 고려했을 때, 어떤 하나의 인과기제의 총위는 그것의 기저가 되는 총위로 완전하게 환원될 수 없다. 각 총위에는 발현적 특성에 의해 고유의 인과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이다.¹¹⁾ 따라서 잠정적으로 ‘교육적 인과기제’라고 부를 수 있는 인과기제의 총위가 존재한다면, 교육에 관한 설명을 다른 총위로 전적으로 환원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예컨대, 발표문에서 다루어진 ‘혁신자치학교 정책의 실행’에 관하여, 좁게는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 쾌락의 개념을 통해 전적으로 설명하거나, 넓게는 세계 자본주의 자본 축적 방식이라는 인과기제를 통해 전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그러나 아쳐 역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비판적 실재론의 논의를 참조했을 때, 일정한 ‘수직적 설명’과 ‘통시적 환원’은 비판적 실재론이 옹호하는 바의 ‘공시적 발현’과 양립할 수 있다.¹²⁾ 가령 혁신자치학교 정책은, 수직적 측면에서는 교육행정체계, 혁신자치학교 정책, 교육제도와 사회적 인식 등의 구조와 문화를 발생시킨 기저의 구조들까지 동원하여 설명될 수 있으며, 통시적 차원에서는 발표문에서 제시된 그러한 구조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변동들(예컨대 가깝게는 ‘진보 교육감’ 선출 이후 혁신교육의 제도화 과정보다 멀리는 5·31 교육개혁 이후 신자유주의적 교육 변화와 그에 반대하는 투쟁의 과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¹³⁾

물론, 개별적인 연구에서 모든 차원의 설명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수직적 설명과 통시적 환원이 무한하게 소급될 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그와 같은 무한 소급은 부적절하기도 하다. (물론, 그러한 소급의 결과 마주하게 되는 이론적/철학적 논점에 관해 숙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각각의 과학적 연구는, 그 자신이 문제삼고 있으며 밝혀내고자 하는 적절한 수준에서 인과적 설명을 멈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적절한 수준’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일은, 적절한 수준의 추상화 문제와 연계된다. 이는 경험적 연구와 추상성의 관계라는 논점으로 토론자를 옮겨가게 한다.

3. 경험적 연구와 추상(화) 수준

교육과학의 대표적 분야 가운데 하나인 교육행정학의 연구자들이 자리하고 있는 이 발표와 토론의 장에서, 추상(화)(abstraction)에 관해 논하는 것은 사뭇 주저되는 일이다. 추상(화)이라는 말이, 철학적 논의 이외의 맥락에서는, 흔히 막연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에 대한 담론(체계화된 이론이 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의 현학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상(화)의 원래의 혹은 엄밀한 의미를 고려했을 때,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 더욱이 과학적 탐구에 종사하는 인간들에게 추상(화)은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¹⁴⁾

엄밀한 의미에서 추상화란 “어떤 객체에서 그것과 관련된 수많은 요소들과 조건들 가운데

11) Roy Bhaskar, *A Realist Theory of Science* (2nd edition) (London: Verso, 2008), p. 113.

12) Bhaskar, *The Possibility of Naturalism*, pp. 98-99; Andrew Collier, 『비판적 실재론: 로이 바스카의 과학철학』, 이기홍·최대용 역(서울: 후마니타스, 2010), pp. 230-231.

13) 이 가운데 통시적 차원의 설명 필요성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종단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발표문(72)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간성을 고려하는 발표자의 향후 연구가 종단연구는 물론이고, 교육운동에 관해 역사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14) 언어 일반의 추상성에 대해서는 Louis Althusser, 『비철학자들을 위한 철학 입문』, 안준범 역(서울: 현실문화연구, 2020), 제3장 참조. 과학적 탐구에서 일종의 방법으로서 추상(화)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기홍, 「추상화: 비판적 실재론의 해석」, 『사회과학연구』(2003), 43, pp. 75-90 참조.

인식의 목표에 비추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만을 뽑아내고 그것에 의해 다른 측면들을 사상(捨象)하는 정신 작용”¹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의 추상(화)은 과학적 탐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차원에서 깊은 연관을 맺고 있지만, 지금의 맥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험적 연구의 적절한 추상(화) 수준에 관한 것이다. 기실, 모든 과학적 탐구는 경험적 연구라 할지라도 (혹은 경험적 연구의 경우에는 더욱더) 복잡한 현상들 가운데 특정한 측면(발표문의 경우에는 수많은 교육행정의 현상들 가운데 ‘혁신자치학교 정책의 실행’)에만 주목하게 되므로, 그 출발점부터 이미 추상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는 각 연구가 상정하고 있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추상(화) 수준’에서 수행될 때에 적절한 인과적 설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경제적 운동 법칙을 밝혀내고자 하는 연구는, 구체적이고 고유한 개별 행위자 A의 구체적이고 일회적인 행위들에 주목하기보다는, 행위자들의 일반적이고 경향적인 행위 수행을 제약하는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논의에 초점을 두어야 적절한 인과적 설명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¹⁶⁾ 따라서 인과적 설명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 적절한 추상(화) 수준을 설정하는 것은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경험적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이는 결국 교육과학의 경험적 연구들이 인과적 설명을 지향한다면, 올맨이 ‘일반성 수준의 추상(화)’라고 언급한 바 있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구의 목표와 다루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그것이 존재론적 수준에서 얼마나 일반적인 사안인지를 판별하여, 그에 적합한 추상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⁷⁾ 물론, 각 연구자가 기대고 있는 이론적 배경에 따라서 각 연구가 설정하게 되는 추상화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연구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추상(화) 수준은 부적절한 연구 결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¹⁸⁾ 예컨대,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경제적 운동 법칙을 밝혀내고자 하는 연구가, 특수한 개인과 상황이라는 추상(화) 수준에서 수행된다면, 자본 축적의 동인을 특수한 개인의 성정이나 욕망에서 찾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 이것이 한 자본주의 사회를 관통하는 경제적 법칙이라고 정당하게 간주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경험적 연구로서 교육현상의 하나를 인과적으로 해명하고자 한 발표문이 내포하고 있는 이론적/철학적 논점들을 검토함으로써, ‘교육과학을 위한 기초작업자’로서 교육철학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 하나의 시도였다. 이러한 교육철학적 시도가 이 발표와 토론의 장에 함께하고 있는 교육과학(교육행정) 연구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5) 이기흥, 『사회과학의 철학적 기초: 비판적 실재론의 접근』(파주: 한울, 2014), p. 182.

16) 마르크스의 『자본』에서 개인들이 구체적인 개별 존재로서 다루어지지 않고 “특정한 계급관계와 계급 이해의 담당자라는 점에서만” 취급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Karl Marx, 『자본』, I, 강신준 역(서울: 길, 2008), p. 47. 마르크스의 과학적 작업에 대한 현대적 논의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의 상당 부분은, 마르크스의 작업에서 상정된 추상화 수준과 그것들의 차이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Bertell Ollman, *Dance of the Dialectic: Steps in Marx's Metho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3), p. 94.

17) Ollman, *Dance of the Dialectic*, pp. 74-107. 올맨은 마르크스의 추상화 양식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 가운데서 그 양식의 하나로 ‘일반성 수준의 추상화’를 제시한다. 그리고 마르크스에게서 일곱 가지의 일반성 수준이 발견된다고 정리하는데, 그 수준은 마르크스의 작업에 대한 것이지만, 인간세계/사회세계에 관한 연구에서 설정할 수 있는 일반성의 추상화 수준을 사유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일곱 수준은 다음과 같다. i) 특수한 개인과 상황; ii) 일반적인 사람들과 행위 및 생산물; iii) 자본주의와 같은 특수한 사회구성체; iv) 계급사회와 같은 보다 일반적인 사회구성체; v) 인간사회 일반; vi) (인간을 포함하는) 동물세계; vii) 물리적 자연세계. 같은 책, p. 91.

18) 같은 책, 같은 페이지.